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요약

▶목적= 이 법은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해 현행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추진기구 및 절차, 기준과 범위, 국가의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 역량 강화, 국가 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기준= 통합의 기본 방향은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지역 특성을 융통성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기준은 1차적 기준으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차적 기준의 의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하다고 느끼는 경우를 말한다. 2차적 기준은 1차적 기준이 충족된 이후의 기준으로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생활·경제권이 분리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역사·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큰 지역 △통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 등이다.

▶건의절차= 통합을 건의하는 방법은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건의 △지방의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건의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50 이상의 주민 연서를 받아 건의 등 3가지가 있다. 3가지 방법 중 어느 한 가지에 의해 통합건의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건의서를 받은 도지사는 의견서를 첨부해 지체 없이 대통령소속 지방행정개편추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추진일정= 통합건의는 원칙적으로 2011년 12월말까지 해야 한다. 지방행정개편추진위원회는 2012년 6월말까지 통합건의서를 참고해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 계획'에 포함시켜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편추진위원회가 마련한 '시군구 통합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또 권고안에 관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정취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경우, 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통합추진공동위원회 구성·운영= 지방의회 의견취회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의사가 확인되면 통합대상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통합추진공동위원회는 60일 이내에 통합자치단체의 명칭과 청사 소재지를 심의·의결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60일 이내에 통합 명칭 및 청사 소재지를 의결하지 못할 경우 개편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다. 권고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못할 경우 개편위원회가 조정해 결정하도록 했다.

▶통합 자치단체 출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률'에 따라 제6대 지방선거(2014년 6월 4일 실시)에서는 통합 단체장과 통합 지방의원을 선출한다. 이와 함께 하부 행정구역 및 행정조직 설계, 공부 정리 등을 하게 된다.



지난 25일 고성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정례회 첫날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

# 2012년 새해 예산 심의 돌입

##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내달 16일까지 ... 홍봉선 의원 통합반대 자유발언

제21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 2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열려, 고성군이 제출한 2012년 새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규정질문과 조례심의 활동을 펼친다.

군의회는 지난 25일 오전 10시 개

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황종국 군수로부터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었다. 또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홍봉선 의원이 4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군 통합 문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군의회는 28일부터 12월14일까지 1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각 실과소별 편성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활동을 벌인다. 이어 12월 15일에는 규정질문을 전개하고, 16일에는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고 올해의 정활동을 마무리한다. 최광호 기자

# 한나라당 속-고-양 '우수당협' 선정

## 지난해 사고지구당 시련 불구 빠른 조직력 회복 높게 평가 정문헌 위원장 "친서민 행보로 지역정치의 모범이 되겠다"

한나라당 속초-고성-양양당원협의회(위원장 정문헌, 사진)가 지난해 사고지구당의 시련에도 불구하고 빠른 조직력 회복으로 '우수 당원협의회'로 선정됐다.

한나라당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3차 전국위원회 및 창당 14주년 기념식을 갖고 속초·고성·양양 당원협의회에 우수당협 표창장을 수여했다.

한나라당 속초·고성·양양당원협의

회는 조직운영 관리실태와 당원교육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평가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인정받았으며, 특히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적극적인 당협 활동을 펼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나라당 강원도당 관계자는 "속초·고성·양양 당협은 지난해 가을, 사고지구당으로 분류되는 시련에도 불구하고 정문헌 위원장 체제가 가동되면서 빠른 속도로 당조직을 회복, 우수 당협까지 선정돼 놀라운 잠재력을 보여줬



정문헌 위원장

다"고 했다.

정문헌 위원장은 "우수 당협 수상은 한나라당을 아끼시는 지역 당원 여러분의 노력 덕분"이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역발전을 갈망하는 지역의 민의를 헤아려 보다 서민을 위해 일하고, 보다 서민에게 다가서는 지역정치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피력했다.

최광호 기자

# 설악권 학생 28명에 장학금 전달

## 운봉장학회 2011년 장학증서·장학금 수여식

재단법인 운봉장학회(이사장 송훈석 국회의원, 사진)는 지난 26일 오후 2시 속초시 노학동 소재 속초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 2011년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한

속초-고성-양양 지역 22개 중고등학교 재학생 28명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총 1천2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운봉장학회는 재단법인으로 출범하기 이전인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학업성적이 우수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속초-고성-양양지역의 중고등학교



송훈석 이사장

생 368명에게 총 1억1천800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한편 재단법인 운봉장학회는 속초-고성-양양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장학사업과 문화·학술진흥사업 지원 등을 통해 고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송훈석 의원이 2004년 7월 설립한 장학법인이다. 최광호 기자